

# 삼국유사 집필한 그 뜻 기리며

### 일연선사 열반 제 723주기 다례제 봉행



8월 25일 열린 일연선사 다례제에는 2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일연선사 열반 제 723주기를 기리는 다례제가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열렸다. 인각사는 8월 25일 주지 도권 스님과 은혜사 총무국장 도홍 스님, 군위불교사암연합회장 둔무 스님, 장육 군위군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일연선사 다례제를 봉행했다. 다례제는 육법공양과 일연선사 연보소개, 법고공연, 종사영반, 봉행사, 추모사 등의 순으로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권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 8일 삼국유사 골든벨

### 14일 삼국유사 뮤지컬

“일연 스님은 단순히 삼국유사의 저자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서 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지켜낸 선각자”라고 스님을 추모했다. 장육 군수는 추모사에서 “일연선사께서 저술하신 삼국유사는 민족의 자주와 자존

을 일깨워주고 귀중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준 불멸의 역사서”라며 “앞으로 인각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주목받지 못한 극락전을 복원해 명실상부한 천년고찰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식은 군위불교합창단의 삼귀례로 시작해 인각사 신도들의 육법공양과 아누리극악단의 법고, 도권 스님의 봉행사, 장육 군수와 도홍제 의장의 추모사, 수산스님의 종사영반 순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인각사는 25일 다례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삼국유사 문화제를 개최한다. 9월 8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삼국유사 골든벨’을 개최하고 14일에는 군위 일연공원에서 삼국유사 속 ‘도화녀와 비형랑’의 설화를 뮤지컬로 만들어 공연하는 삼국유사 문화의 밤 행사가 열린다. 문화의 밤 하루 전인 13일에는 경주에서 열리는 제78차 국제펜대회에 참가한 전세계 114개국 350명의 유명 문인들도 일연공원에서 만찬을 갖고 뮤지컬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은해사 박물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경북지역 사찰의 성보박물관이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되고 있다. 은해사 성보박물관은 최근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다.

지난 2009년 9월 개관한 은해사 성보박물관은 수장고와 학예연구실 등을 갖춘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로 보물 제1604호 ‘영천 은해사 청동북 및 복걸이’ 등 성보

7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서 사립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된 성보박물관은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 예천 용문사 성보박물관,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을 포함해 총 4곳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태풍피해 정이품송, 불심으로 보호

### 법주사, 9월 1일 백중 맞아 목신제 봉행

뭇중생을 구한다는 백중을 맞아 고사 위기에 처한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을 구하기 위해 법주사 스님들이 산신제를 지냈다.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백중인 9월 1일 정이품송 앞에서 정이품송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목신제(木神祭)를 개최했다.

백중은 부처님 제자 중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한데서 유래된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다. 영가 천도 뿐만 아니라 뭇 중생들의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날 300여 불자들은 백중법회 후 2km 떨어진 정이품송 앞까지 정근하며 자리를 옮겨 제를 봉행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관리에 있는 정이품송은 수령이 6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가 14.5m, 둘레 4.77m이다.

정이품송은 1980년대 중부지방을 강타한 솔잎혹파리에 감염돼 죽을 고비를 넘긴 바 있다. 10년 가까이 방충망을 쓰고 투병한 뒤 수세(樹勢)가 급격히 약화돼 태풍·폭설 때마다 가지가 찢기고 부러지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10여 개의 가지가 부러지면서 좌우대칭이 완전히 무너져 우산 형태의 아름다운 자태를 잃었으며 28일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밀동 옆의 가지 1개가 또다시 부러졌다.



이에 보다 못한 스님들이 정이품송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로 뜻을 모으고 제를 준비한 것이다. 제 비용은 백중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이 십시일반 모았다.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정이품송은 지역 상징일 뿐만 아니라 충의를 의미한다”며 “위기에 처한 정이품송을 구해 보자는 마음을 모아 제를 올리기로 했다. 더 이상 병들거나 아프지 말고, 풍파도 잘 넘어 천수를 누리라는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부산 우리들병원

### 생명나눔 MOU체결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와 부산 우리들병원(병원장 황병욱)은 8월 24일 오전 부산 우리들병원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 우리들 병원은 생명나눔 회원증을 소지한 시민들에게 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 부산 우리들병원은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해 장기기증 안내 및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한국불교대학, 임직원 수련회 봉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임원진들이 수련회를 통해 불교와 불교대학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대학은 8월25일 옥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 주간만 임원진과 종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경과 심리특강, 대동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수련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주 우학 스님은 호주 현지법당에서 보낸 영상 법문을 통해 “임원진들이 호법신장 역할을 하면서 포교를 활발하게 전개해서 불교대학의 미래가 되어드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학은 지난 18일에는 야간반 임원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봉행했으며 9월 1일에는 신입생 임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염화시중 미소가 아름다우려면

어느 날 영산회상에서 범람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치자, 석존께서 연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셨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나, 오직 가섭만이 석존의 뜻을 깨닫고 빙긋이 미소를 지어보였으니 이것이 바로 염화시중의 미소이다.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인도에서는 연꽃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고 한다. 연꽃의 원산지가 인도인지라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왔던 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왕성하게 자라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생태적 특성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불교교단이 성립되면서 연꽃은 불교

의 상징적인 꽃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것의 청정성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 연꽃이 언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불교가 전해지면서 연꽃도 함께 전해져 꽃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연꽃은 7월부터 8월에 걸쳐 꽃을 피우는데, 오래전에 살았던 불자들이 분다리화(백련화), 우발라화(청련화), 파두마화(홍련화), 구물두화(황련화)가 가득 핀 연지를 바라보며 극락정토에 왕성한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절에서는 연지를 만들고 연을 심어 연꽃이 피는 아름다운 사찰을 만들어왔다. 불국사 구룡연지나 미륵사 연지, 정림사 연지에서 연을 심었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것

을 입증할 수가 있다. 또, 연지가 없는 절에서는 석련지를 만들어 연이나 수련을 심어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요즘에도 연지가 별도로 없는 절에서는 연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석련지나 질그릇으로 만든 연분에 연을 심어 연꽃을 피운다. 이러한 연분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흡사 꽃꽂이를 해놓은 것처럼 그 모양이 신비롭다. 그러나 몇몇 절에서와 같이 빨간색이나 검정색 플라스틱 통에 연을 심어 연꽃이 가진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연꽃이 불교의 상징적인 꽃이고, 사찰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드는 꽃이라면 그것을 심는 그릇도 품위가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 연꽃을 심는 연분까지도 정성스럽고 독창적으로 만든다면 절마다 개성있는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사찰이 그 시대의 문화와 유행을 선도해왔으니 이제 사찰경관을 디자인해야한다는 말도 이상할 것이 없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검정색 플라스틱 통은 꽃이 가진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서울 B 사찰

## 빛살림

#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썩~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신면 구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 (054)637-9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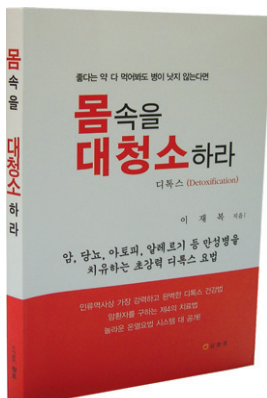
정글본기(이명옥) 서울성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10-서울성동 0204호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직)를 쉽게 푸는 법 수록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약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뭉글뭉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